

2020년 네 번째 호 (통권 33호)

별마을 이이=기

(星村, 별성마을촌)

서로를 밝혀주는 빛이 되는 것,
그래서 서로가 그 빛에 의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사이란 것입니다.

- 엄창섭, 엄도경의 수필집 「나는 별이다」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촌의 집
www.sungchon.or.kr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별마을 이야기

(星村, 별 성 마을 촌)

Contents

2020 Vol. 33

- 03 에필로그 (별마을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다)
- 04 별마을 이야기#1 (우리가 만든 포토북, 사진동아리)
- 05 별마을 이야기#2 (건강한 삶, 건강지킴이)
- 06 별마을 이야기#3 (행복한 장터)
- 08 별마을 이야기#4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마을, 동암누리)
- 10 별마을 이야기#5 (댄싱퀸오브성촌을 마치며)
- 11 별마을 이야기#6 (우리들만의 송년회)
- 12 별마을 메모리즈
- 13 행복한 동행
- 14 좋은이웃들
- 15 감사합니다



별마음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다

성린보육원, 성린재활원, 성촌의집의 원장 성촌재단의 제2대 이사장이셨던 **故김영주 이사장님**

지난 10월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중에 전쟁 고아들의 돌봄부터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지체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도록 물심양면 정성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지체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의 생활의 지원을 위한 거주시설의 운영까지...

20대의 청년시절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전생애를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저희들이 그 마음을 받아 성촌재단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직원들의 행복한 나날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별..

성촌의집에 1996년에 들어와서 2020년 11월까지 25년을 성촌의집에서 함께 살아온 **故김○○님**

라면과 국수 그리고 단팥빵과 떡을 좋아하셨으며 애국가를 멋들어지게 부르며 송년회의 시작을 알리셨던 분

염불을 잘 따라하시고 늘 마음의 수양을 하셨던 분

매직과 하얀 종이 모으는 것을 좋아하셨고 늘 무엇인가를 그리며 즐거워 하셨던 분

가끔은 직원들의 수고로움을 위로하듯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셨던 분

민망한 상황이 될 때는 웃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드셨던 분..

김○○님의 미소는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시기도 하셨고 위로도 되어 주셨습니다.

심장질환으로 가끔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버거워 하셨지만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하셨던 아름다움 분

성촌의집의 살아온 시간을 뒤로하여 이제는 아픔없는 그곳에서 더 행복하세요.

우리가 만든 포토북 사진동아리

2019년도부터 시작된 성촌의집 사진동아리~!
카메라를 들고 인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멋진 노을을 찍기 위해 태안 만리포로 여행도 다녀왔죠.

2019년에는 멋진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도 했었는데요.
올해에도 전시회를 열고 싶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진을 찍으러 나가지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던 와중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사진을 찍고
포토북을 만들자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진촬영은 시작되었습니다!
웃어요~ (찰칵) 멋진 포즈! (찰칵)
우리 모두가 모델이 되었고 포토북이 만들어졌습니다.

포토북을 통해서 알릴 수 있었던 우리의 생활!
앞으로도 우리 사진동아리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건강한 삶, 건강지킴이



♥ 내 건강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승원님 “매일 걷기 운동과 윗몸일으키기 운동을 해요”,

영우님 “런닝머신을 열심히 타요”,

미경님 “저는 걷기 운동과 자전거타기를 할께요”,

미영님 “매일 10시에 성춘헬스장에 올께요”

순임님 “미영이랑 같이 운동하러 올께요”

모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성춘헬스장에 와서 운동 할 때 마다 스스로 출석 체크 해보기로 했습니다.



♥ 그 결과는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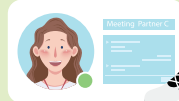
출석률이 가장 높은 승원님~ 약속한대로 운동을 잘 실천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다른 분들도 성춘헬스장에 오셔서 스스로 운동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나이가 외부활동 감소로 체력이 많이 약해진 이용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성춘의집 주변과 녹색공간에서 산책을 하면서 체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이용자분들의 얼굴 속에서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성춘의집 모든 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보아요^^



행복한 장터

코로나19로 지쳐 위로가 필요한 요즘, 행복한 장터에서 잠시나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달콤, 상큼, 놀라운 맛의 행복한 한끼도 해결하세요.

별별장터는 싸고, 맛있고, 좋은 물건이 가득합니다.

골라, 골라! 왁자지껄한 행복한 장터, 구경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별마을 은행입니다.

장○임 직원이 은행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체온 체크와 소독을 해야 합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손님이 통장과 전표를 은행원에게 제출합니다.

"20,000원 인출하시는 것 맞습니까?", "네, 맞아요.",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손님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직원이 인출할 금액을 손님에게 전달합니다. 통장을 가져오지 않아 다시 돌아가 통장을 가져온 손님도 있었고 정말 은행이랑 똑같다며 성촌의집 안에 은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달콤, 상큼, 놀라운 맛의 행복한 한끼~

무엇을 먹을까? 순대랑 떡볶이가 맛있어요.

김밥과 오뎅도 있고요. 갓 구운 빵, 샌드위치, 약식, 샐러드, 피자, 음료...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고르기가 힘드네요~ 모두들 행복한 미소로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하네요.

각자 취향에 따라 음식을 고르고 장터 직원이 "다음에 또 오세요." 인사를 하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네" 인사를 하네요.



싸고, 맛있고, 좋은 물건이 가득한 골라, 골라! 별별장터

최○호 직원이 체온을 체크하고 손님들이 별별장터로 입장을 합니다.
이○준 직원이 과일 코너에서 큰소리로 “감 사세요!” 손님을 끌어 모아
장사를 하네요.

김창○ 직원은 배달 준비 완료! 역시 직원을 잘 뽑았군요!

“예쁜 양말이 많네~ 사고 싶은 빗도 샀어요. 스카프 얼마예요?

수건도 있고 베개커버도 있고 별게 다 있네~”

손님이 양손에 물건가득 가져와 계산대에 올리면 직원은 계산을 하며
“손님, 배달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너무 좋은 서비스
라며 좋아들 하시네요.

많은 손님들이 다음에도 장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장바구니도 한가득, 행복한 마음도 한가득! 행복한 장터였어요.



행복한 장터를 마치며....

이용자들이 자원해서 장터 직원이 하고 싶다고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독부, 판매부, 배달부로 나눠 이용자가 원하는 부서를 지원하고 직접
시연을 통해 직원의 역할과 마음가짐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자들이 직원이라는 자부심 높았어요.
급여도 지급한다고 하자 모두들 기뻐하네요.
이용자들이 다음에도 장터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실제 일터에 출근하지
못하고 쉬는 이용자가 많아 가슴이 찡~
빨리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마을 동암누리



지금! 우리 마을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속을 살살이 파헤쳐 보자!

쌀쌀한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지고 모두가 추위를 느끼는 계절이지만 우리 마을엔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십정2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여 '나눔'을 주제로 마을인문학교실이 있었고, 성촌의집 이용자와 십정2동 주민들이 마을의 변화를 위한 '동암누리'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상점을 이용하지 못했던 이용자들을 위한 의사소통도구! 그리고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계단이 있어 이용하지 못했던 곳들에 경사로가 설치될 예정이에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동암누리 발대식

'동암누리'활동의 시작을 선언하는 발대식이 10월19일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와 성촌의집에서 ZOOM화상회의를 통한 이원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선서문을 읽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동암누리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과연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죠?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책자TF모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대화가 뚝! 하고 끊어지겠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마을 '동암누리'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마을 주민으로 지역의 상점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책자의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책자의 자문위원인 이미정 박사님과 책자에 들어갈 내용들과 삽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삽화작가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도구가 만들어지면 우리 이용자분들이 당당하게 혼자 가서 상점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죠?



찾아가는 나눔교실

우리마을에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공감지기’ 분들입니다. 공감지기는 성촌의집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의 소상공인분들로서 우리 이용자들이 상점을 방문했을 때나 길에서 어려움에 마주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공감지기분들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선 먼저 장애인식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겠죠? 장애인에 대해 모르면 도움을 주고자해도 위험이 될 수있기 때문이죠.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을 나누고, 모르고 있던 사실들에 대해 배우면서 ‘이제는 물어보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십정2동의 따뜻한 공감지기들을 만나면 인사를 건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울림인문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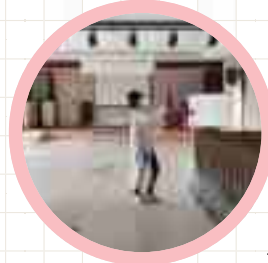
동암누리 발대식 이후 참여주민과 성촌의집 이용자들이 어울림인문학교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대면이 아닌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울림인문학교실은 ‘미국사람과 American’,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찾아왔다.’ 라는 주제로 성촌의집 이용자들도 십정 2동의 주민으로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모습들을 나누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마을 동암누리’ 사업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댄싱퀸오브성춘을 마치며..

댄싱퀸오브성춘을 시작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계획은 댄스와 스트레칭으로 장애인들의 근력 향상으로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의 수업이 필요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장애인거
주시설에는 면회뿐 아니라 외부강사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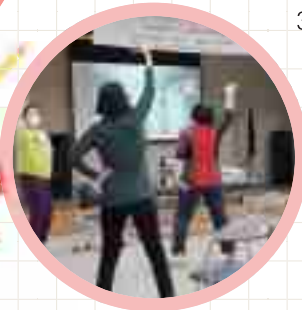
‘하반기에는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보류.. 또 보류..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었기에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방식인 실시간 영상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스텝 투스텝.. 화면 속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하기란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댄스동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괜찮을까?’ 담당자와 지원자는 걱정되었습니다. 강사도 처음 접하는 온라인 수업에 이용자들의
동작을 하나하나 잡아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이용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용자들은 음악에 맞춰 스텝을 하고 팔동작, 다리동작이
서서히 강사의 움직임과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원자는 ‘이렇게 잘하세요? 처음과 너무 다른데요?’라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편마비와 천식으로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서 눈물을 보이던 영희님.
누구보다 열심히 동작 하나하나에 의욕을 보이신 결과
30분 움직이고 10분 숨고르기하던 첫 수업과 달리 2시간 동안
쉽 없이 동작을 이어갑니다.



언택트시대에 비대면 수업. 이용자들의 체력과 능력 향상.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끝마치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들만의 송년행사

2020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곳곳에 퍼지게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기고 연말행사모임도 자제하는 분위기에 따라 성촌의집도 송년행사의 형태를 바꾸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만큼 올해는 송년행사는 거주홈별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여자홈, 남자반자립홈, 남자케어홈 3개의 거주홈에서 이용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송년회를 언제, 어떻게 할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을 회의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는 무선마이크를 가져올게요.”

“나는 ○○○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많이 도와줬거든요.”

“저는 끝나고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할게요.”

이용자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는 송년회인 만큼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날짜와 컨셉, 역할도 정해서 홈별로 송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함께 고생한 것에 대해 서로에게 개성 넘치는 상장도 주고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거주홈별 송년회 분위기가 궁금하시죠?

사진으로 그 기분을 함께해보세요♥



별마을 메모리즈

김장 김치 담그기



이용자들은 각 홈 마다 드실 김장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김치 재료를 씻어서 무는 채칼로 밀고 파와 갓은 칼로 썰고 양념도 직접 만들어서 절임배추에 양념 속 넣기까지~ 위생도 최고~ 맛도 최고!!

독감 예방 주사



코로나19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결과 올해는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죠? 그래도 이용자분들과 직원 모두는 독감 예방 주사로 한번 더 방역 완료하였습니다.

이용자 치과 검진



치솔질을 구석구석, 어려워도 노력하는데 색은 이는 왜 자주 늘어날까요? 올해도 치과 검진과 구강 교육으로 이용자분들은 개인의 치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직원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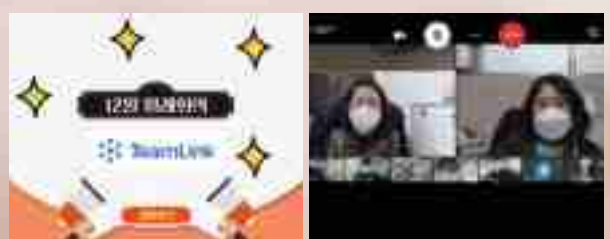
직원연수는 '힐링'이 주재였습니다. 가까운 공원 산책과 배달음식,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커피까지~ 코로나19에 지친 직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하루였습니다.

비대면 장애인 뮤직페스티벌 관람



전국장애인뮤직 페스티벌~
강당에 모여 온라인으로 감상 중입니다.

비대면 월례회의



코로나19로 10인 이상 모임이 제한된 생활속에 비대면 온라인 월례회의로 각 팀의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 그이상의 아름다움.

2020.09.~2020.011.

교촌경인유통



간식(교촌치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부



부식세트, 손소독제

동그라미봉사단



도시락50인분

부평감리교회



쌀

세브란스의원(윤재경)



독감 예방 접종

인천농산물주식회사



김장재료

인천순복음교회



쌀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가족공원



김장재료

피스



김장김치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김치, 막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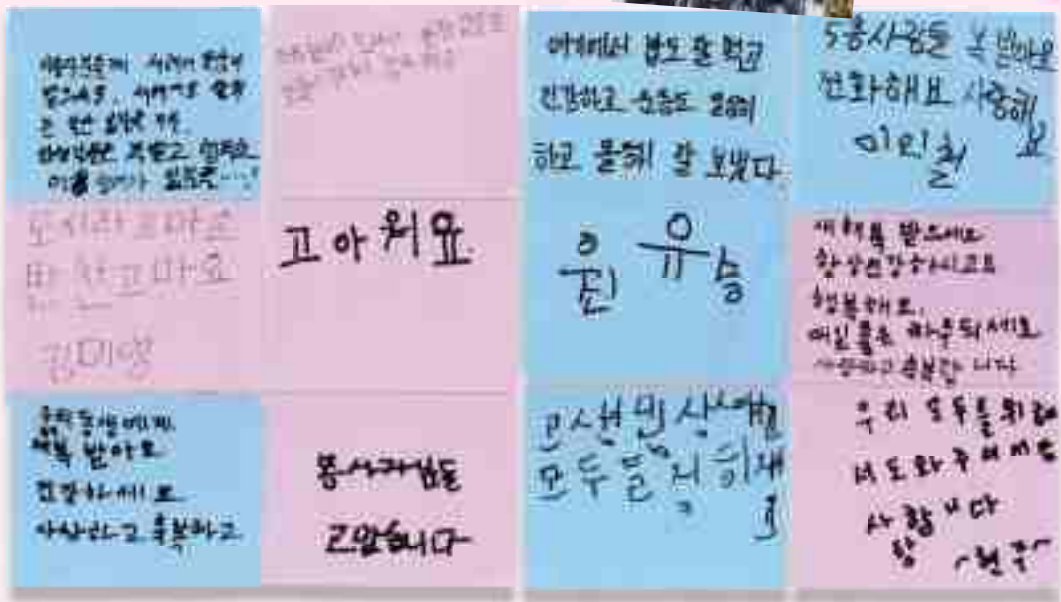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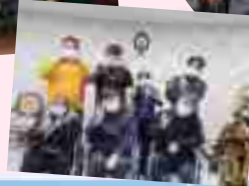
한우리봉사단



도시락50인분

성촌의 자원봉사자분들과 후원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올해는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성촌은 온기있는 2020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들께 행복한
일들 가득하길 기원 드리며 성촌의집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 명단 (2020.09.01.-2020.011.30.)

+ 신규후원자

개인 : 신민진, 양충석, 유경열, 이성일, 장상익

단체 : 송의초등학교, 인천광역시의회

+ 지정후원금

개인 : 이은주(성촌의집), 임미정

단체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피빈(아이디) : 강민형, 길라잡이, 낙간, 망미미, 박명숙, 배수경, 송희연, 숨은천사, 아이리스, 에이취, 연우, 이사미, 이은주(성촌의집), 현우야사랑해, 해민공주, 흰둥상어, 체르, ochcake001, CoffeeHolic, harnas, kkz, kkztt, mylove, One, tiger412

+ 비지정후원금

CMS : 김기순, 김은미, 김인수, 박경진, 손대원, 윤재경, 이구형, 이상진, 이은주 (부평우체국), 정금자, 조근태, 조성숙, 최경자

개인 : 권혁규, 김기순, 김숙정, 김옥신, 김현보, 박남호, 박왕진, 박점숙, 백설희, 백준희, 서영재, 서하나, 송성희, 신진자, 신차남, 양충석, 유경열, 이성일, 이은주(성촌의 집), 이호형, 이향란, 장상익, 장 순, 전정호, 정명환, 정민영, 정상용, 조경진, 태은실

단체 : 건강길악국, 교촌에프앤비(주), 국민은행동암지점, 동암교회, 라성악국, 벨엘악국, 송의초등학교, 인천중앙감리교회, 인천광역시의회, 차우차이, 촌집보쌈, 최승민베이커리, 24시전주공나물

+ 후원물품

코로나19대응물품(손소독제 등) :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부

직원독감예방접종 : 윤재경(세브란스의원)

주부식지원(고기, 김치, 도시락, 부식 등) : 김문규, 강인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부, 동그라미봉사단, 부평감리교회, 유승호, 인천농산물주식회사, 인천순복음교회,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피스, 한우리봉사단

간식지원(치킨, 떡, 빵, 과일 등) : 권혁규, 교촌경인유통, 안스베이커리(구월점), 이병권, 정명환

기타물품지원(차류, 의약품, 차량관련 등) : 김기순, 라성악국, 시흥현대모터스, 신도리코대기OA(이명우), 신민진, 이미복, 이사미, 장 순, 진홍석

👉 자원봉사자 명단 (2020.09.01.-2020.11.30.)

단체 봉사자

《동그라미 봉사단》- 중식 도시락 배달

오현주회장, 나태현총무, 김경숙, 김기복, 김인선, 김현미, 민영희, 박병학, 방혜원, 서금란, 신철균, 안영란, 이금희, 이정혁, 임충휴, 정옥원, 최계한, 최태문

《한우리 봉사단》- 중식도시락 배달

김지환회장, 강신자, 김종숙, 김지영, 엄옥자, 오연자, 장배원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2020.09.01.-11.30.)

세 입		
지정후원금	따뜻한겨울나기 사업비	996,000
	해피빈	312,500
	지정후원금	550,000
비지정후원금	CMS후원금	560,000
	단체후원금	2,540,000
	개인후원금	4,625,510
기타접수입		3,862
합계		9,587,872

세 출		
인건비	기타후생경비	550,000
	수용비및수수료	1,371,040
운영비	공공요금	510,410
	제세공과금	750,000
	기타운영비	1,441,400
	재산조성비	시설비
사업비	의료재활사업비	262,000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3,617,150
	영양관리사업비	216,000
	합계	합계

성촌의집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동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 민 은 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 협 은 행 301-0072-5929-41
우 체 국 100115-01-000694
새마을금고 9002-1870-3578-7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모금함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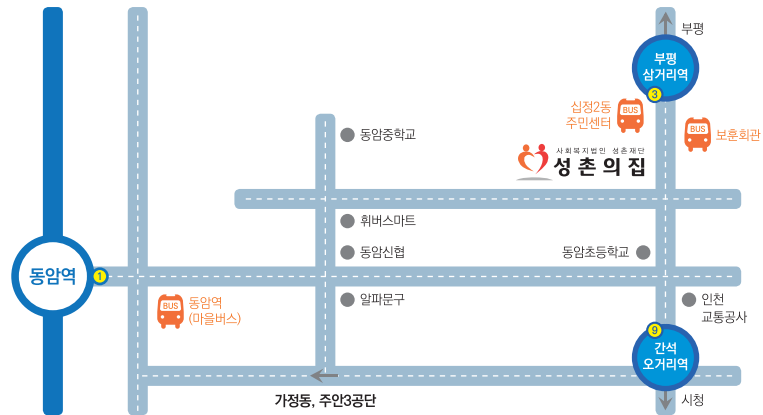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청소용품, 마스크, 여성용품)
가전제품(컴퓨터, 건조기)
사무용품(빔 프로젝터, 스크린)
보조기기(리클라이너 침대 등)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동장애인과의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십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해피빈공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공배너를 클릭하고
공(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공 기부



별마음이야기 2020년 네 번째 호 (통권33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항란 편집위원 | 김기철, 유성우, 장연희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